

“겨울용은 네 바퀴 모두 장착하는 게 더 안전”

한국타이어가 알려주는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



계절에 맞춰 타이어를 바꾸는 것이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해 보이지만 계절용 타이어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타이어는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철 이상 한파가 잦아지고 강설량이 늘면서 겨울용 타이어 수요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온도 따라 타이어 탄력 달라진다

승용차용 타이어는 계절별로 3가지로 나뉜다. 학창시절 사용하는 지우개를 생각하면 계절용 타이어의 분류를 훨씬 이해하기 쉽다. 컴파운드(고무의 배합)에 따라 딱딱한 지우개, 물렁물렁한 지우개가 있다. 또 지우개는 온도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 상온에서 딱딱한 지우개는 쉽게 닳지 않지만 물렁한 지우개는 쉽게 마모된다. 고무로 된 자동차 타이어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타이어는 판매 지역의 온도에 맞게 설계된 컴파운드에 따라 해당 온도대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한다. 이런 고무 성질 때문에 하나의 타이어로 트랙에서 빠르고, 눈길에서는 안 미끄러지고,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만능 타이어는 없다.

겨울용 타이어, 얼마나 더 안전할까?

보통 겨울용 타이어가 일반 타이어에 비해 제동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반 상식처럼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국타이어가 실제 눈길과 빙판길에서 테스트한 결과에 따르면, 눈길에서 시속 40km로 달릴 경우 겨울용 타이어는 제동거리가

18.49m였다. 그 반면에 사계절용 타이어는 37.84m로 겨울용 타이어가 사계절용 타이어 대비 제동성능이 약 두 배나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용 타이어 속에 담긴 안전 비밀

겨울용 타이어가 사계절용 타이어보다 제동성능이 월등히 뛰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겨울용 타이어는 영하의 기온과 눈길, 빙판길에서도 탁월한 제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무 성분은 물론이고 트레드(Tread:노면과 닿는 타이어 표면) 디자인 및 구조가 다르게 제작되기 때문이다.

겨울용 타이어에는 빙판길과 눈길에서 노면과 마찰할 때 고무의 반발력을 낮추고, 저온에서도 딱딱하게 굳거나 얼지 않는 유연성이 좋은 고무를 사용한다. 그리고 겨울용 타이어 트레드 표면에 삽입된 수많은 커프(트레드 표면에 새겨진 미세한 홈)는 뛰어난 마찰 효과를 발휘한다. 타이어 전면의 넓은 4줄의 직선 그루브(타이어 홈)는 우수한 배수성능으로 눈이나 빙판이 녹아 타이어와 도로 사이에 형성되는 수막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한층 강력한 접지력을 얻을 수 있다.

두 바퀴만 교체하면 된다?

많은 소비자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겨울용 타이어 교체 시 앞바퀴 혹은 뒷바퀴 두 개만 교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만으로도 안전한 겨울운전을 할 수 있을까? 결론은 2개만 교체할 경우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바퀴 두 개만 겨울용 타이어로 교체했을 경우에는 겨울용 타이어 장착으로 앞바퀴 접지력은 향상한다. 그러나 뒷바퀴의 접지력

이 낮은 상태가 되어 급격한 코너링을 할 때 원심력에 의해 차선을 이탈할 수 있다. 쉬운 예로 스노체인을 사용하는 운전자의 경우 체인만 믿고 굽이친 도로를 돌아가다가 차량 뒤쪽이 돌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뒷바퀴 두 개만 겨울용 타이어로 교체했을 때에는 뒷바퀴의 접지력은 높고, 앞바퀴의 접지력은 낮은 상태가 되어 급격한 코너링 시 차량 제어가 불가능해져 차량 앞쪽이 주행 도로 밖으로 벗어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겨울용 타이어는 네 바퀴 모두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눈길·빙판길에서 급가속·급제동 금물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는 일반 노면보다 4~8배 더 미끄럽기 때문에 급가속이나 급제동은 금물이다. 출발은 천천히, 신중하게 하고 운행 중 가속 및 감속도 천천히 해야 한다. 바퀴 자국이 있는 눈길에서는 핸들을 놓치지 않도록 꼭 쥐어야 하고, 언덕길에서는 미리 저속으로 기어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 또 내리막길에서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한다.

제동할 경우 거리를 충분히 유지해 여유 있게 멈춰야 하고, 브레이크를 갑자기 세게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낮춰서 주행하는 것 역시 금물이다. 트레드 마모한계선(트레드 깊이 1.6mm)이 넘은 타이어는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교환하거나 눈길 혹은 빙판길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타이어 공기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수축 현상으로 더 빨리 감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기온 차이가 심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마모가 심

해지므로 접지력 상태도 자주 확인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폭설에 대비해 스노체인도 항상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

【 한국타이어의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 】

- ▶ 눈길, 빙판길에서는 저속기어로 출발하고, 타이어가 공회전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언덕을 오를 때는 다 오를 때까지 저속기어를 사용하고 도중에 기어변속은 금물이다.
- ▶ 급발진, 급가속, 급회전, 급정지해서는 안 되고 정지 시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한다.
- ▶ 차간거리를 여름철의 2배 이상 유지한다.
- ▶ 타이어체인을 사용할 때는 타이어 규격에 적합한 것을 구동축에 장착한다.
- ▶ 타이어체인을 장착하고 눈길, 빙판길을 운행하는 경우 시속 30km 이하를 유지한다.
- ▶ 겨울용 타이어는 겨울 시즌에만 사용하고 겨울이 지나면 바꾼다